

a  
 + 예수님 ○ 복음사가 ● 다른 한 사람 ⊙ 다른 몇몇 사람 ⊙ 군중

○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.

22,14-23,56

<또는 23,1-49>

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< > 부분을 생략한다.

○ <<sup>14</sup>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.

<sup>15</sup>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.

+ “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

기를 간절히 바랐다. <sup>16</sup>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파스카 축제가

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

다시는 먹지 않겠다.”

○ <sup>17</sup>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.

+ “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. <sup>18</sup>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나

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

빛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."

○ <sup>19</sup>예수님께서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, 그것을

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.

+ "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. 너희는 나를

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."

○ <sup>20</sup>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

말씀하셨다.

+ "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.

<sup>21</sup>그러나 보라,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

에 앞아 있다. <sup>22</sup>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. 그러나  
 불행하여라,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!”

○ <sup>23</sup>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 
 누구 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. <sup>24</sup>사도들 가운데에서  
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 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 
 벌어졌다. <sup>25</sup>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

+ “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, 민족들  
 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<sup>게</sup> 하나.

<sup>26</sup>그 러 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 는 안 된다. 너희 가운데에서  
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

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. <sup>27</sup>누가 더 높으냐?

식탁에 앉은 이냐, 아니면 시중들며 섬기는 이냐? 식탁에

앉은 이가 아니냐?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가

운대에 있다. <sup>28</sup>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

나와 함께 있어 준 사람들이다. <sup>29</sup>내 아버지께서 나에게

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. <sup>30</sup>그리하

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,

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. <sup>31</sup>시몬

아, 시몬아! 보라,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

섰다. <sup>32</sup>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

하 여 기도하였다.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

힘을 북돋아 주어라.”

†

○ <sup>33</sup>베드로가 말하였다.

“주님,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

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.”

○ <sup>34</sup>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

“베드로야, 내가 너에게 말한다.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

†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.”

○ <sup>35</sup>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.

† “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

을 때,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?”

○ 사도들이 대답하였다.

“아무것도 없었습니다.”

○ <sup>36</sup>예수님께서 이르셨다.

“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

+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.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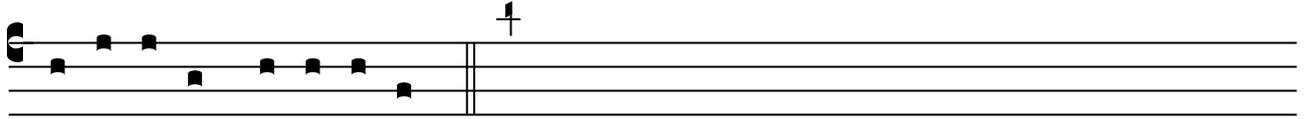
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. <sup>37</sup>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성경에

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. ‘그는 무법자들

가운데 하나로 해아려졌다.’는 말씀이다. 과연 나에게 관하여

기록된 일이 이루어 지려고 한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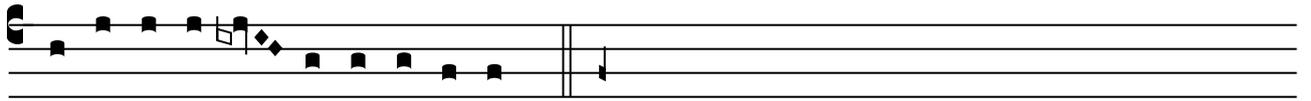
기록된 일이 이루어 지려고 한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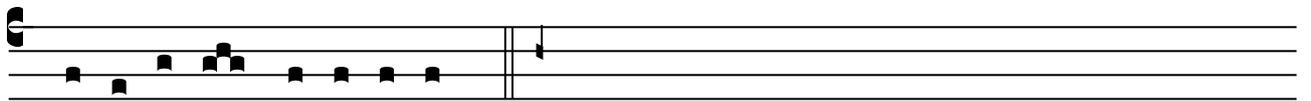
○ <sup>38</sup>사도들이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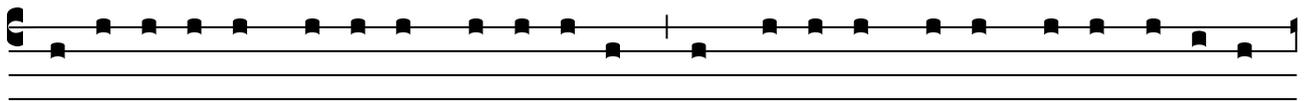
⊕ “주님, 보십시오.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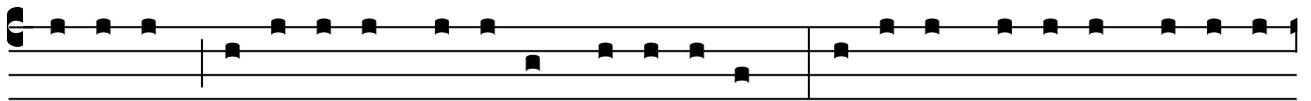
○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



⊕ “그것이면 넉넉하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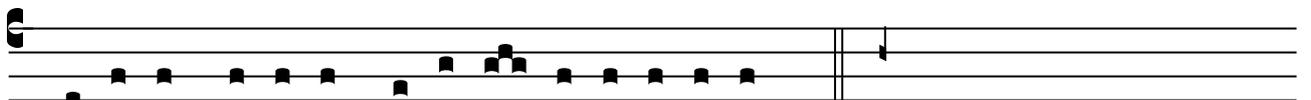
○ <sup>39</sup>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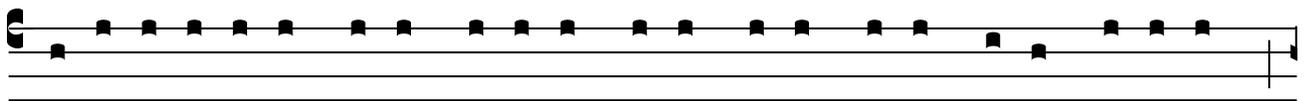
가시니,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. <sup>40</sup>그곳에 이르러 예수님



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

⊕ “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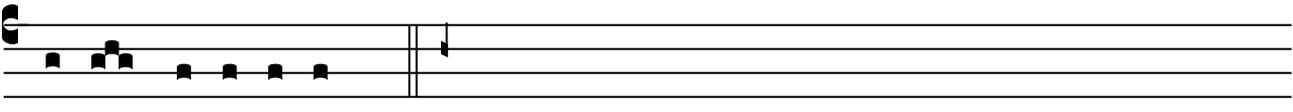


○ <sup>41</sup>예수님께서 는 돌을 던지면 땅을 만 한 곳에 혼자 가시어



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.


  
 + <sup>42</sup>“아버지,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 

  
 주십시오.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 

  
 지게 하십시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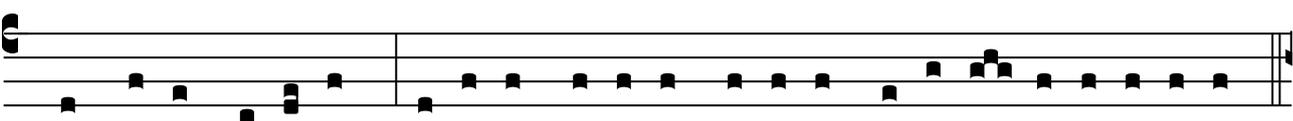

  
 ○ <sup>43</sup>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 

  
 드렸다. <sup>44</sup>예수님께서 고뇌에 싸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, 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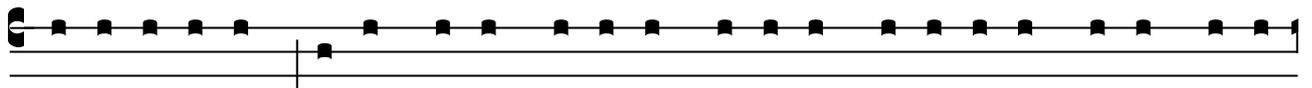
  
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. <sup>45</sup>그리고 기도를 마  

  
 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, 그들은 슬픔에 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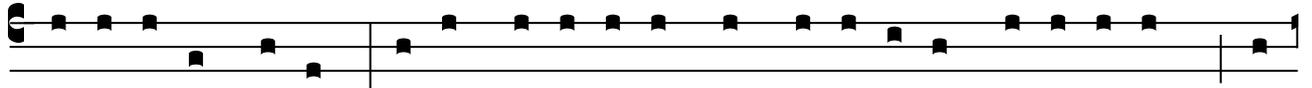
  
 지쳐 잠들어 있었다. <sup>46</sup>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


  
 + “왜 자고 있느냐?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.”  


○ <sup>47</sup>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



나타났는데,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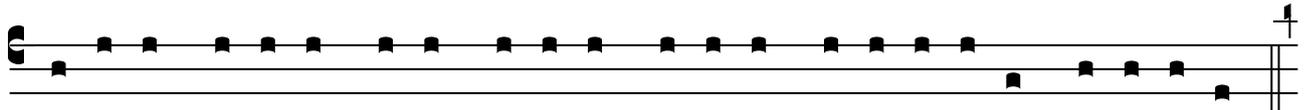
앞장서서 왔다. 그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다가오자, <sup>48</sup>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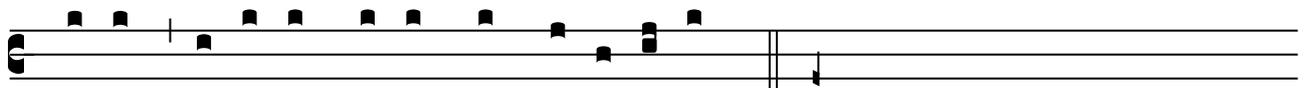
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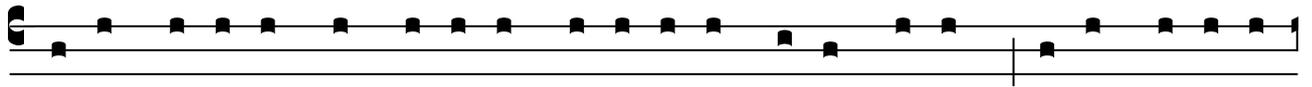
+ “유다야,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?”



○ <sup>49</sup>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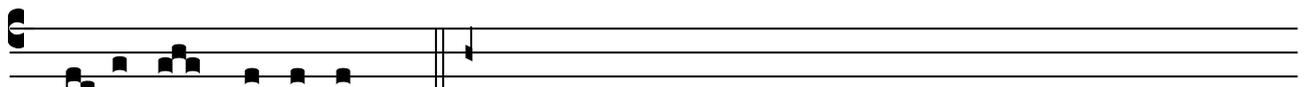
⊙ “주님, 저희가 칼로 쳐 버릴까요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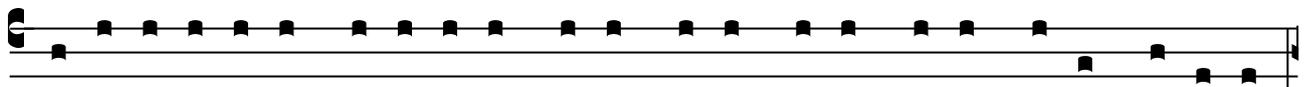
○ <sup>50</sup>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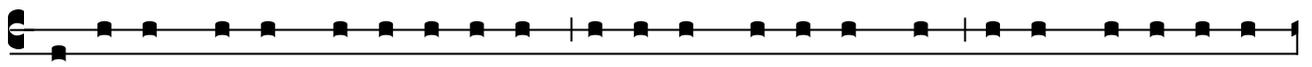
귀를 잘라 버렸다. <sup>51</sup>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



+ “그만해 두어라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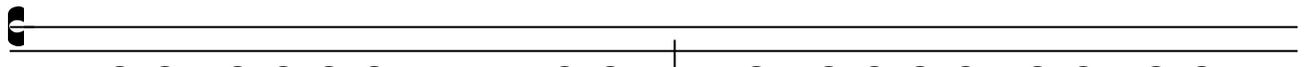
○ 예수님께서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 주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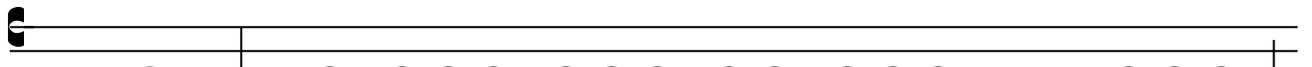
<sup>52</sup>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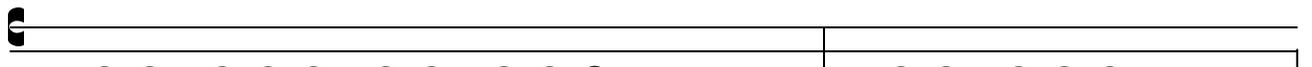
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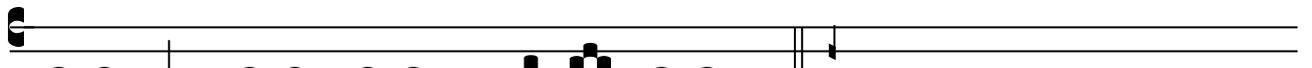
+ “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



말이냐? <sup>53</sup>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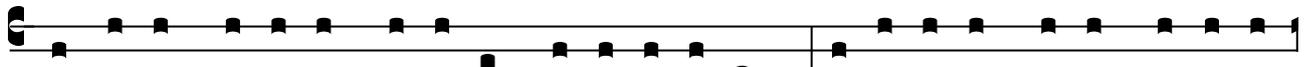
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. 그러나 이제는 너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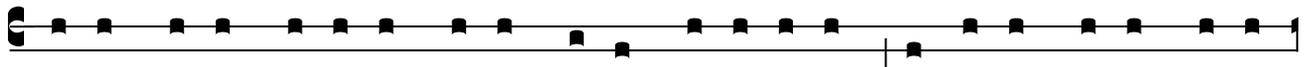
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.”



○ <sup>54</sup>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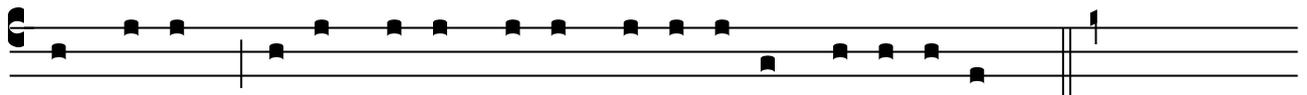
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. <sup>55</sup>사람들이 안뜰 한가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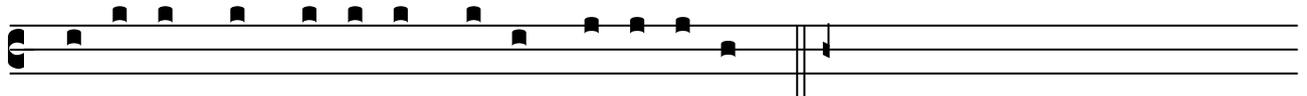
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었는데, 베드로도 그들 가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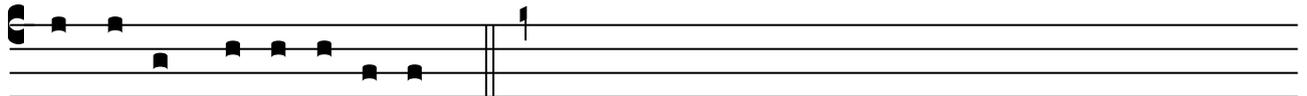
데 끼어 앉았다. <sup>56</sup>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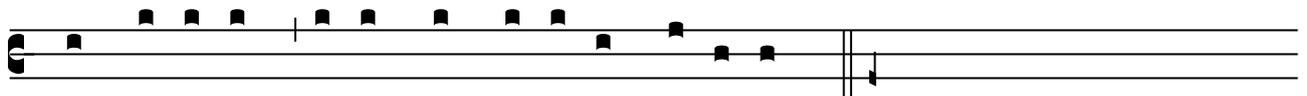
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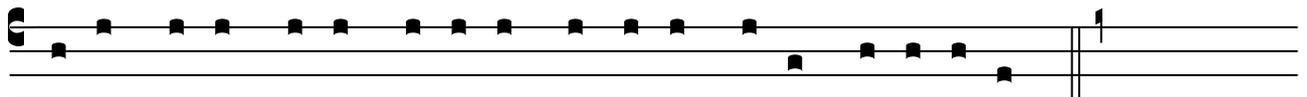
● “이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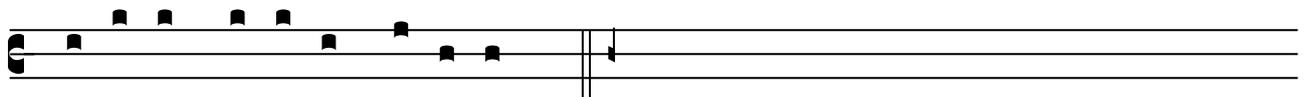
○ <sup>57</sup>베드로는 부인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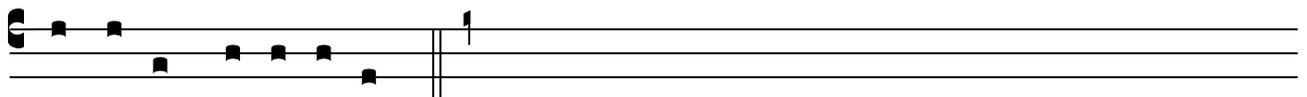
● “이 여자야,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.”



○ <sup>58</sup>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.



● “당신도 그들과 한패요..”



○ 베드로가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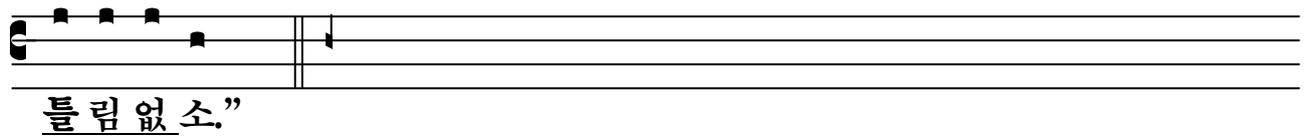
● “이 사람아, 나는 아닐세.”



○ <sup>59</sup>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.



● “이이도 갈릴래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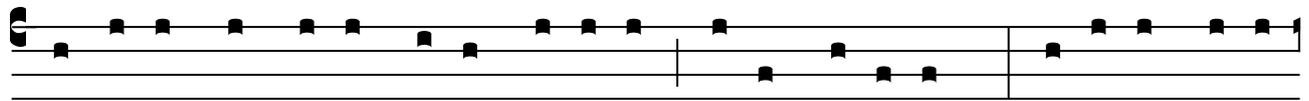


틀림없소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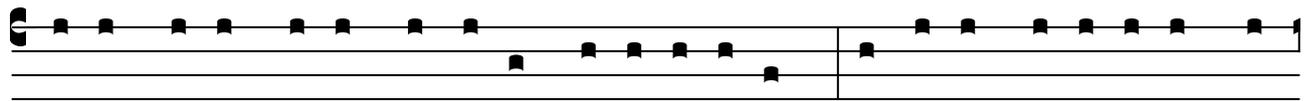
○ <sup>60</sup>베드로는 말하였다.



● “이 사람아,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.”



○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. <sup>61</sup>그리고 주님



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. 베드로는 주님께서 “오



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



이다.”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, <sup>62</sup>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.



<sup>63</sup>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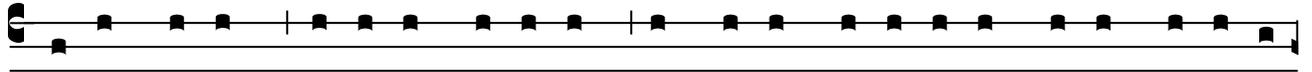
<sup>64</sup>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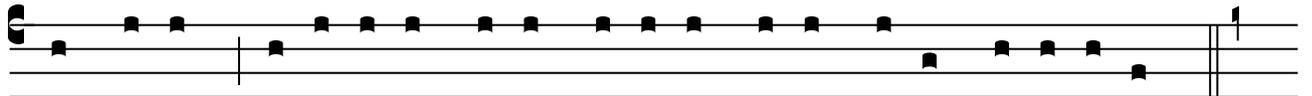
○ “알아맞혀 보아라. 너를 친 사람이 누구나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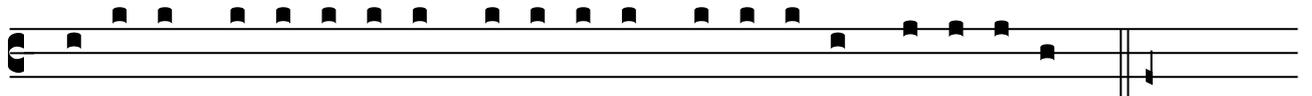
○ <sup>65</sup>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떠부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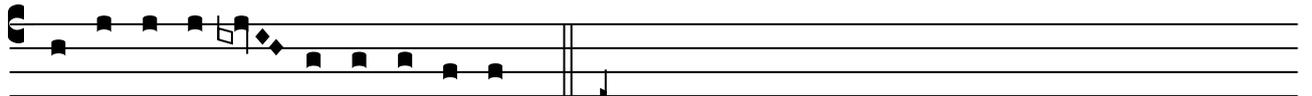
<sup>66</sup>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,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



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.



⊙ <sup>67</sup>“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십시오.”



○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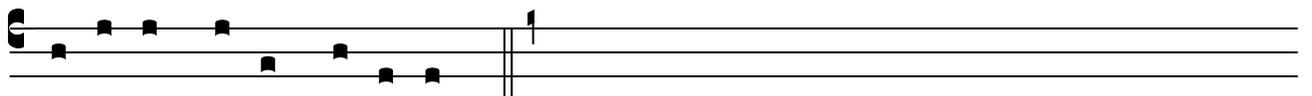
+ “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, <sup>68</sup>내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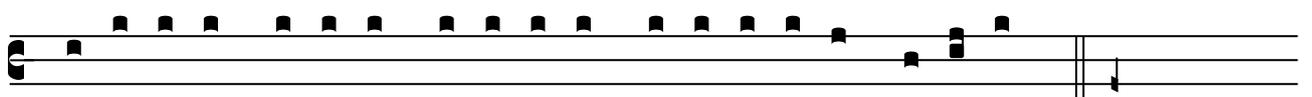
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. <sup>69</sup>이제부터 ‘사



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.”



○ <sup>70</sup>그러자 모두 물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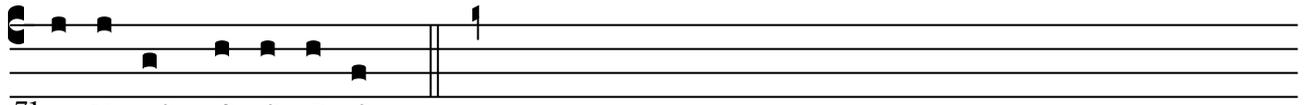
⊙ “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오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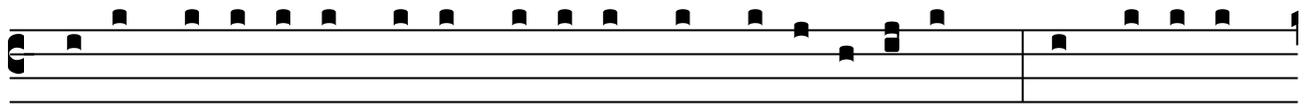
○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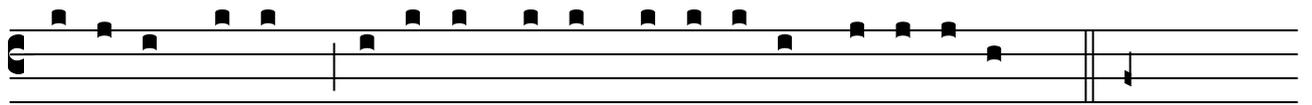
+ “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.”



○ <sup>71</sup>그들이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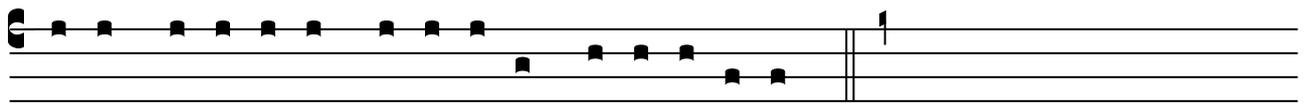
○ “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? 제 입으로



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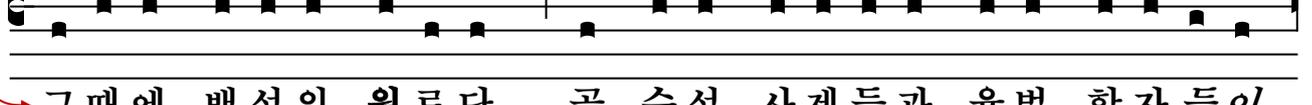


○ <sup>23,1</sup>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. <sup>2</sup>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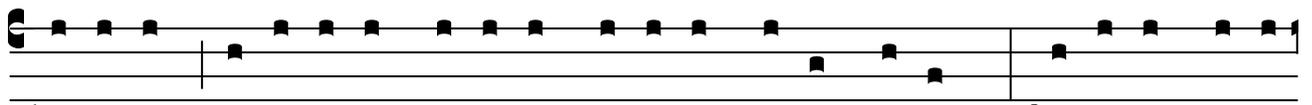


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. > ○ “우리는 ... 다음 장을 보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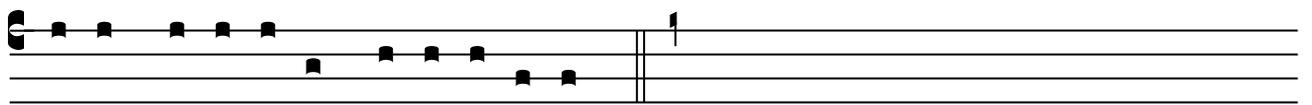
짧은 복음의 시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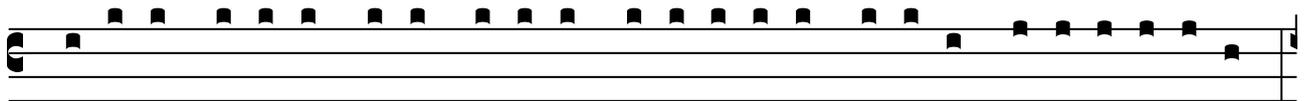
○ 그때에 백성의 원로단,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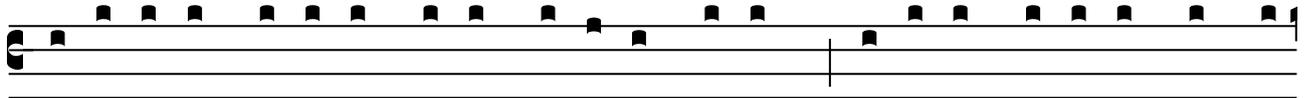
<sup>1</sup>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. <sup>2</sup>그리고 예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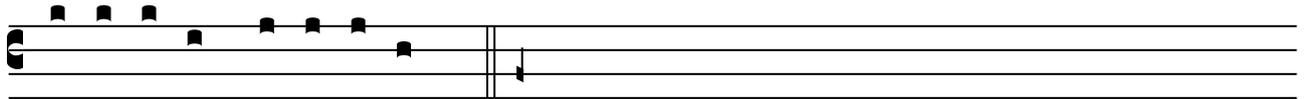
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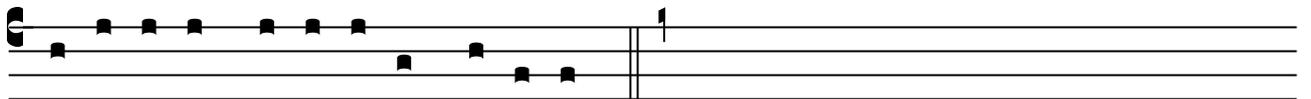
○ “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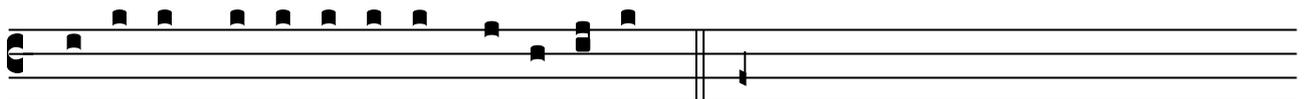
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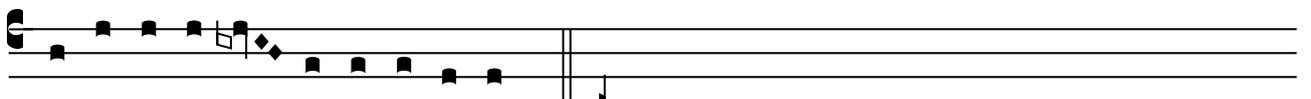
금이라고 말합니다.”



○ <sup>3</sup>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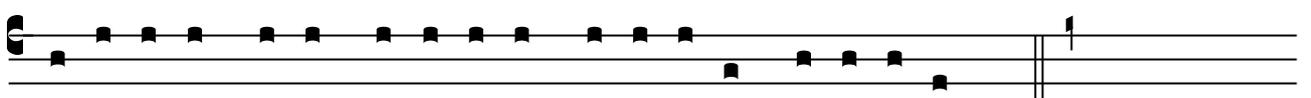
● “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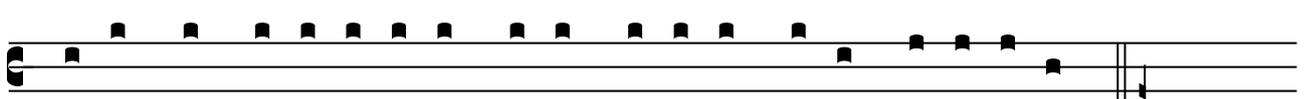
○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.



+ “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.”



○ <sup>4</sup>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.



● “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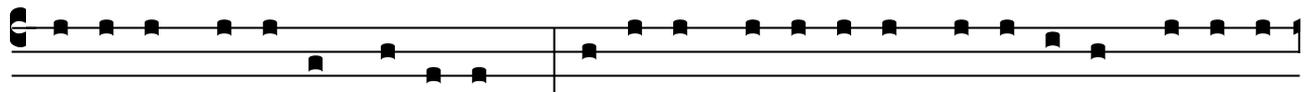


○ <sup>5</sup>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.

① "이 자는 갈릴 레 아에서 시작하 여 이 곳에 이르기까 지 온

유 다곳곳에서 백 성을 가르치며 선 동하고 있 습니 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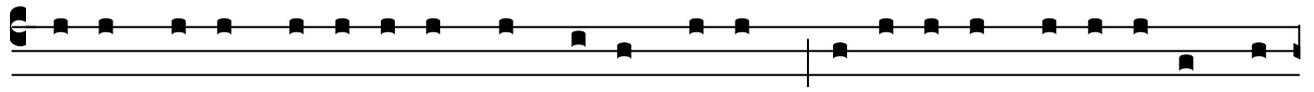
② <sup>6</sup>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  
 더니, <sup>7</sup>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  
 을 헤로데에게 보냈다.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  
 다. <sup>8</sup>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. 예수님의  
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 
 아니라,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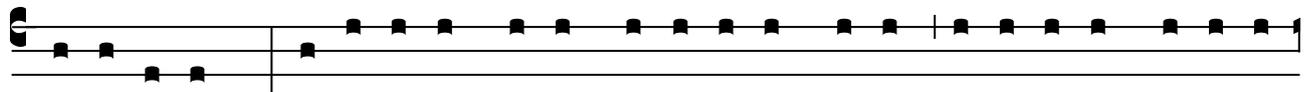
대하고 있었던 것이다. <sup>9</sup>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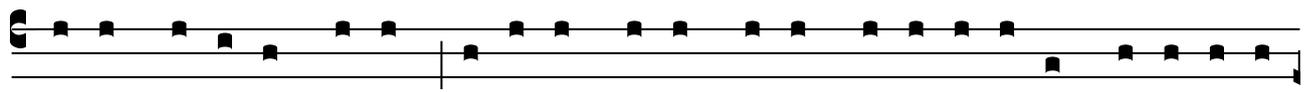
만,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. <sup>10</sup>수석 사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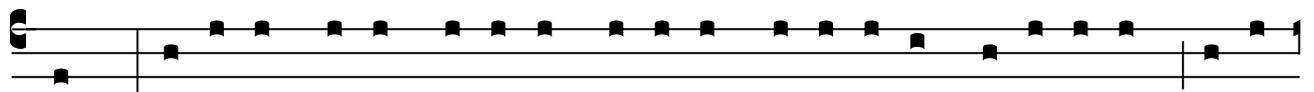
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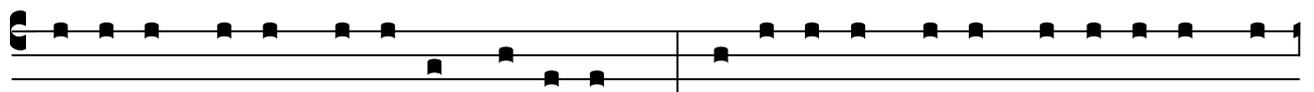
소하였다. <sup>11</sup>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



기고 조롱한 다음,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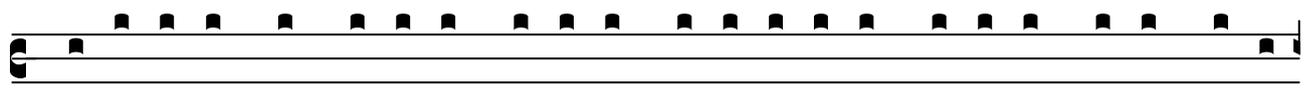
다. <sup>12</sup>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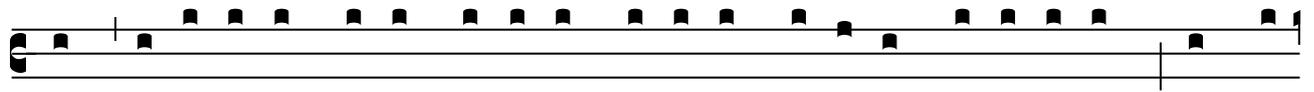
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. <sup>13</sup>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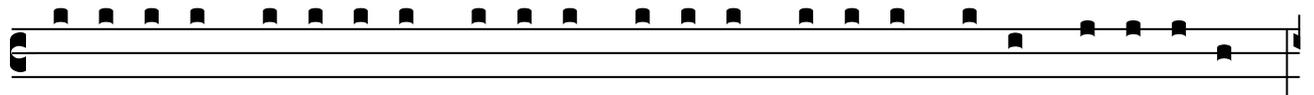
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<sup>14</sup>그들에게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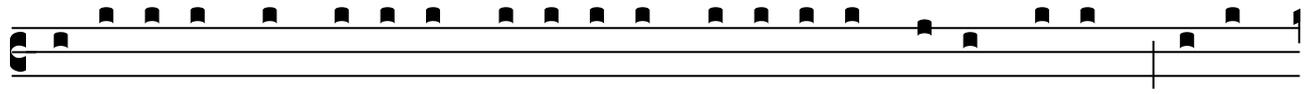
● “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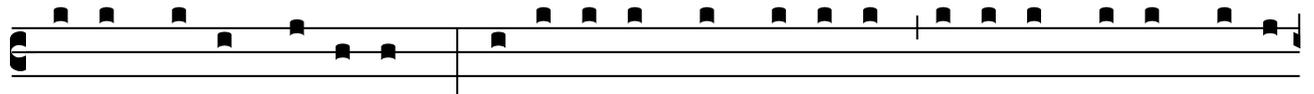
데,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, 이 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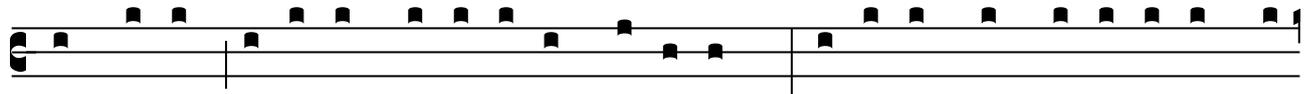
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.



<sup>15</sup>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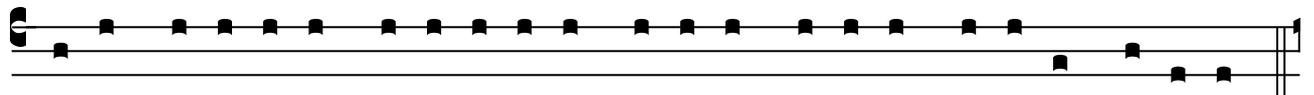
찾지 못한 것이오.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



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. <sup>16</sup>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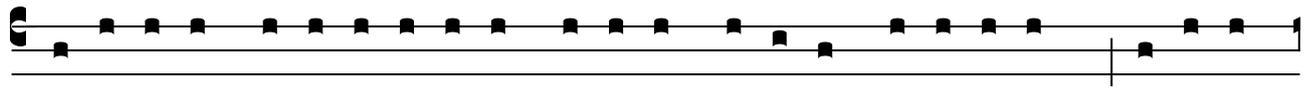
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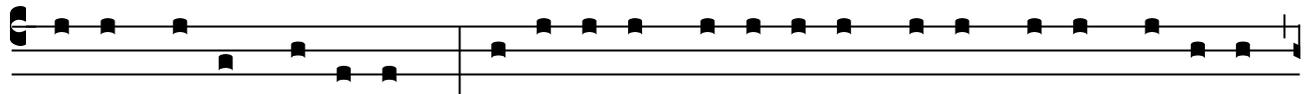
○ <sup>(17)18</sup>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.

223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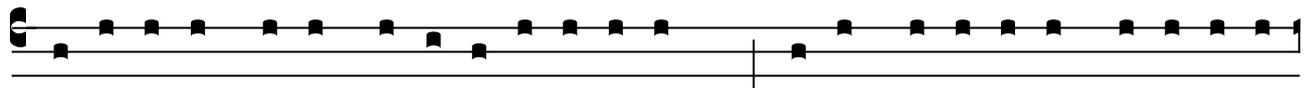
○ "그 자는 없애고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.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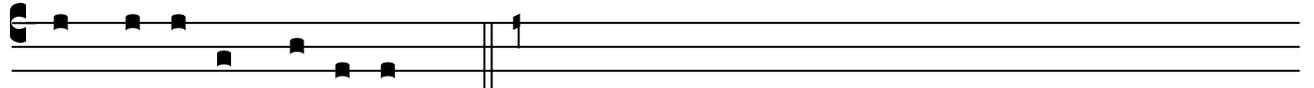
○ <sup>19</sup>바라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



갇혀 있던 자였다. <sup>20</sup>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서



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, <sup>21</sup>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



과 백성은 외쳤다.



"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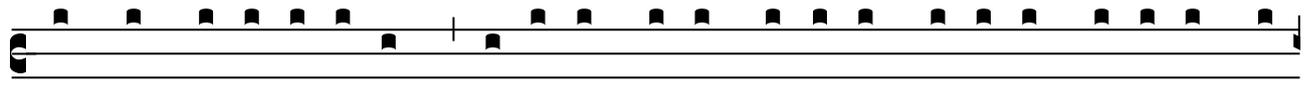
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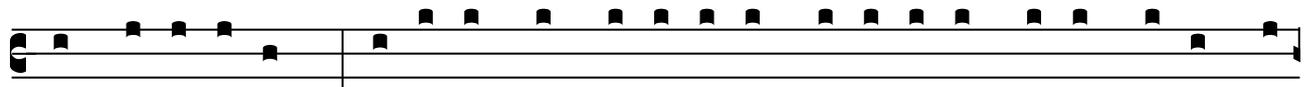
<sup>22</sup>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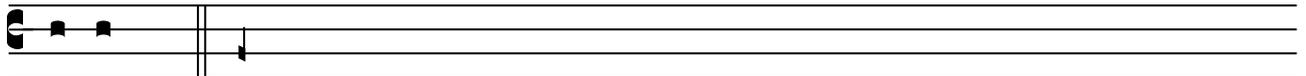
“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? 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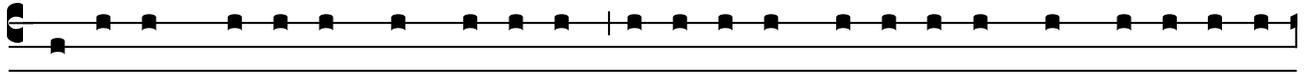
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



지 못하였소.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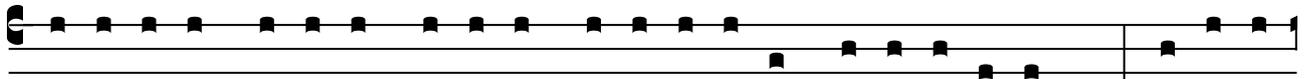
겠소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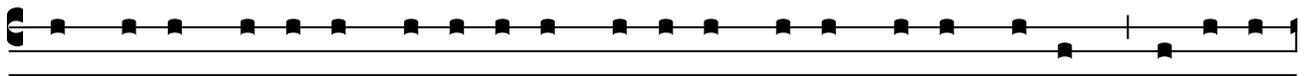
○ 그러자 <sup>23</sup>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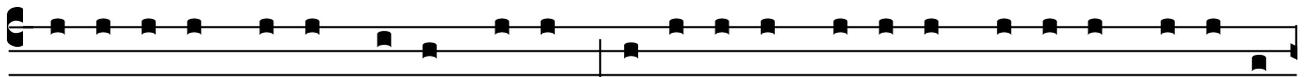
다그치며 요구하는데,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. <sup>24</sup>마침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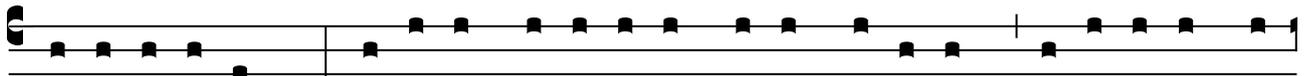
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. <sup>25</sup>그리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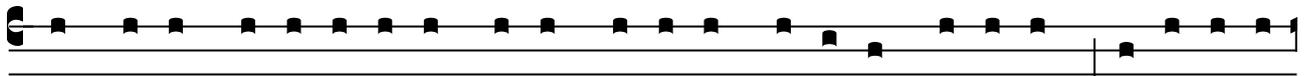
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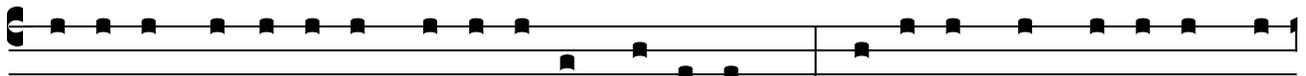
요구하는 대로 풀어 주고,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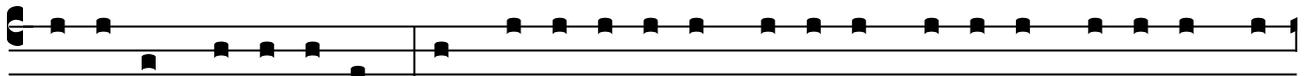
넘겨주었다. <sup>26</sup>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, 시골에서 오



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



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. <sup>27</sup>백성의 큰 무리도 예



수님을 따라갔다.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

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. <sup>28</sup>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

게 돌아서서 이르셨다.

+ “예루살렘의 딸들아,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

녀들 때문에 울어라. <sup>29</sup>보라, ‘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, 아

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

하여라!’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. <sup>30</sup>그때에 사람들은

‘산들에게 ‘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!’ 하고 언덕들에게 ‘우

리를 덮어 다오’ 할 것이다. <sup>31</sup>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

당하거든 마른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?”

○ <sup>32</sup>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

갔다. <sup>33</sup>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

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,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

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. <sup>34</sup>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

하셨다.

+ “아버지,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.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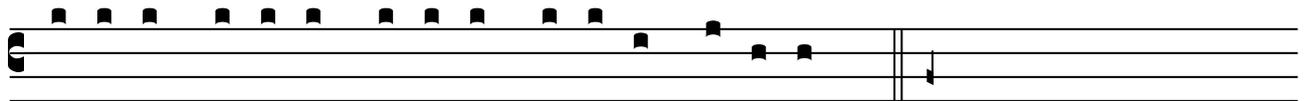
일을 하는지 모릅니다.”

○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 비를 뽑아 예수님의

겉옷을 나누어 가졌다. <sup>35</sup>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.

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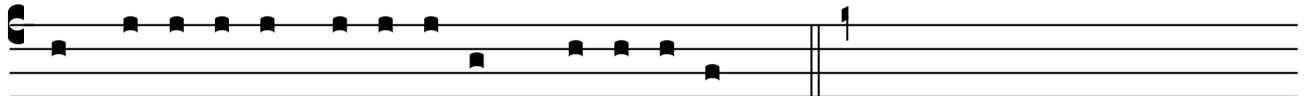
⊙ “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,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,



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 해 보라지.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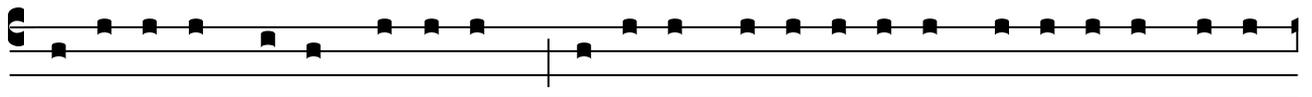
○ <sup>36</sup>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.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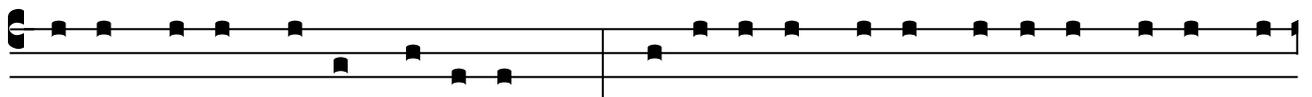
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<sup>37</sup>말하였다.



⊙ “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 해 보아라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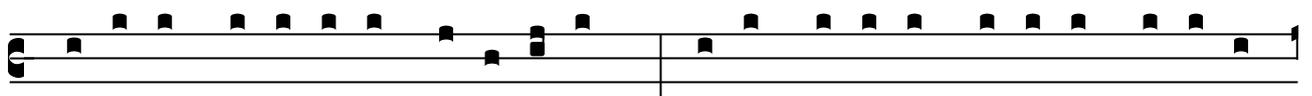
○ <sup>38</sup>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‘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.’라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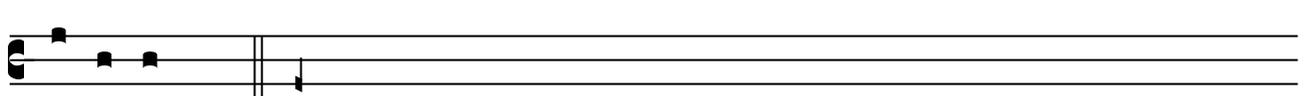
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. <sup>39</sup>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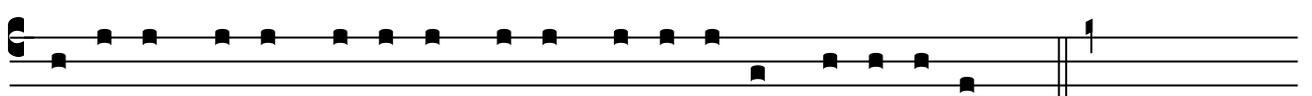
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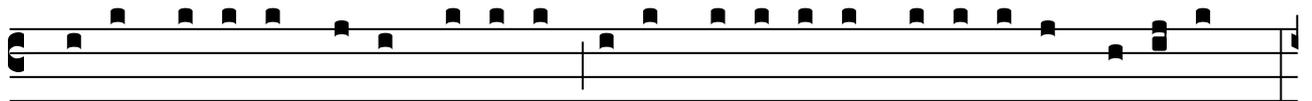
● “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?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 해



보시오.”



○ <sup>40</sup>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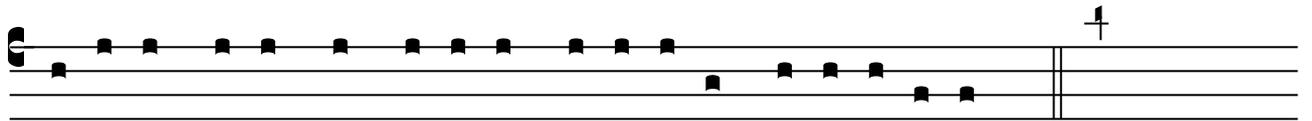
● “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나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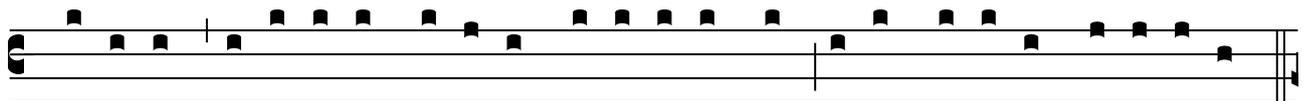
<sup>41</sup>우리아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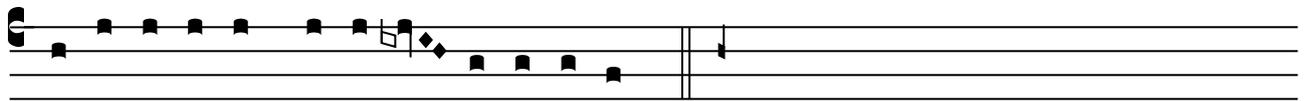
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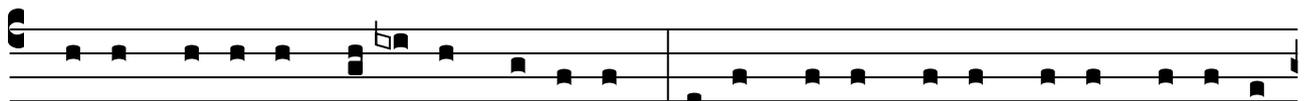
○ <sup>42</sup>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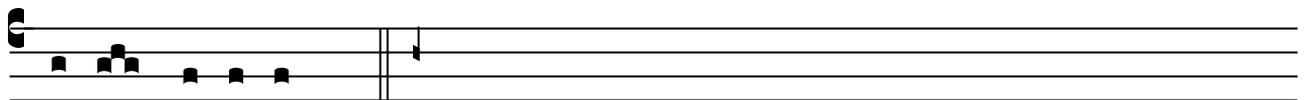
● “예수님,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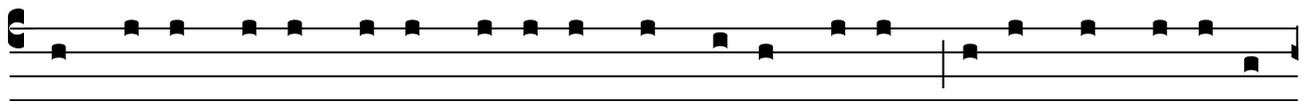
○ <sup>43</sup>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.



+ “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.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



있을 것이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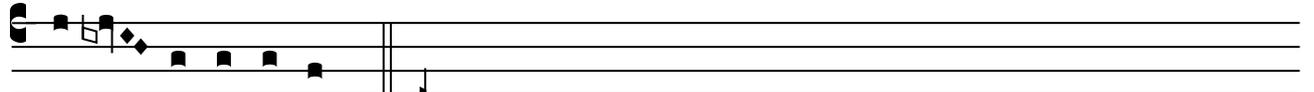
○ <sup>44</sup>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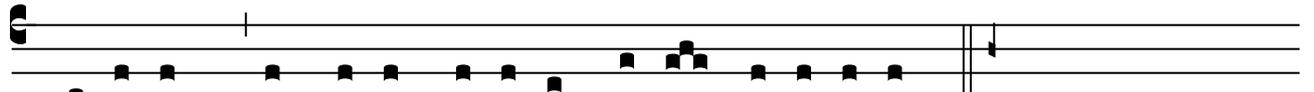
계속되었다. <sup>45</sup>해가 어두워진 것이다. 그때에 성전 휘장 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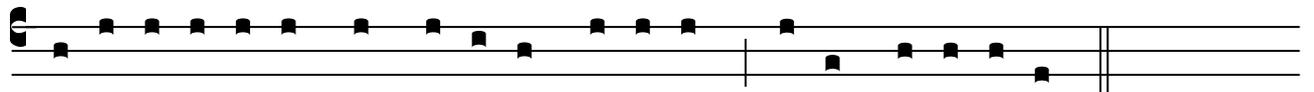
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. <sup>46</sup>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



리로 외치셨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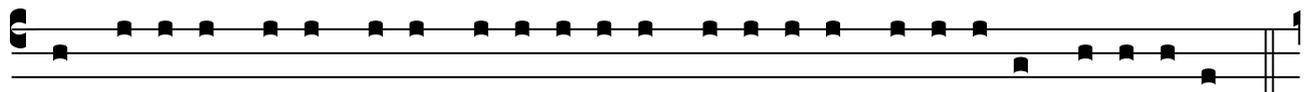


+ “아버지, ‘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.’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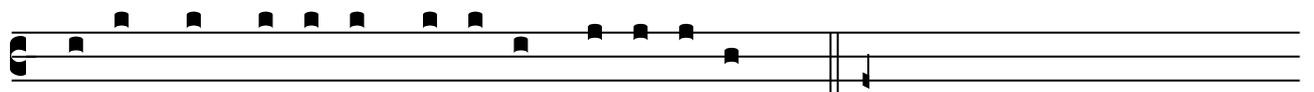


○ 예수님께서 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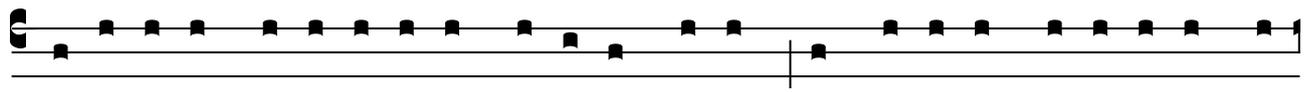
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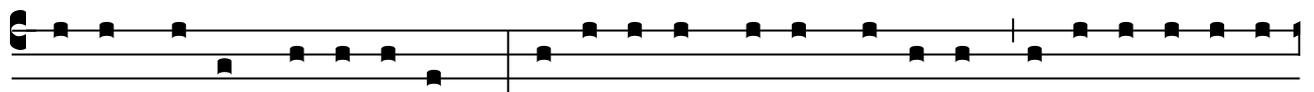
○ <sup>47</sup>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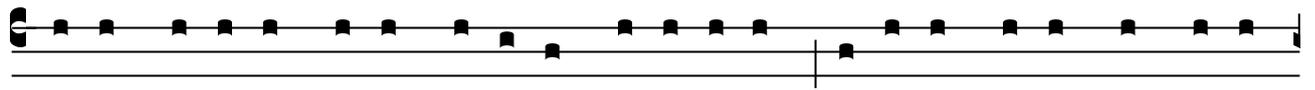
● “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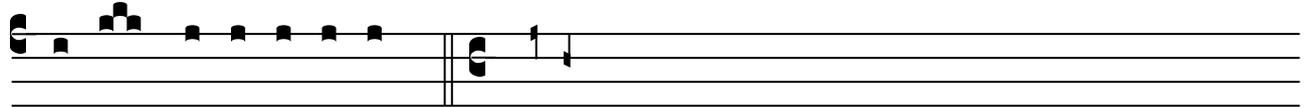
○ <sup>48</sup>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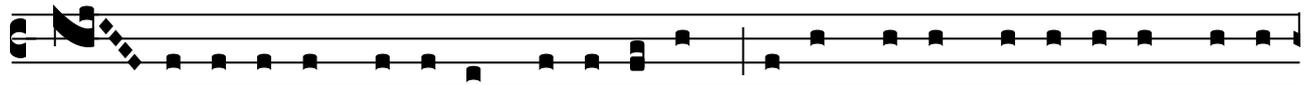
숨을 치며 돌아갔다. <sup>49</sup>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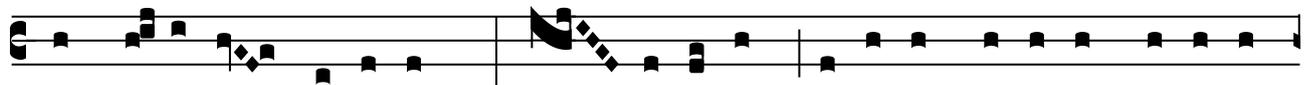
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



일을 지켜보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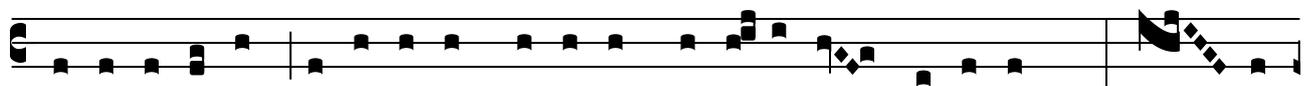
<<sup>50</sup>요 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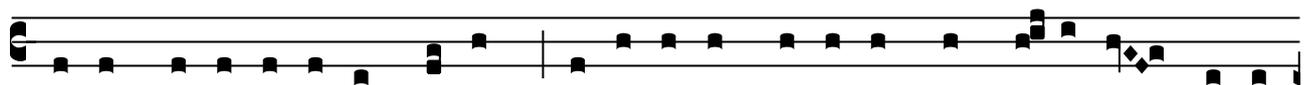
고 의로운 이였다. <sup>51</sup>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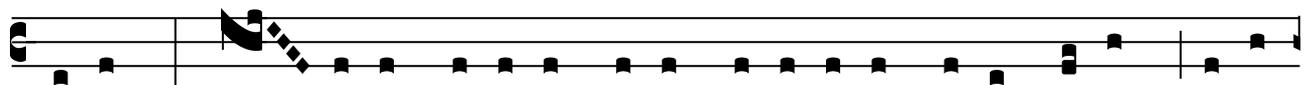
동의하지 않았다. 그는 유대인들의 고을 아리마태 아



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. <sup>52</sup>이 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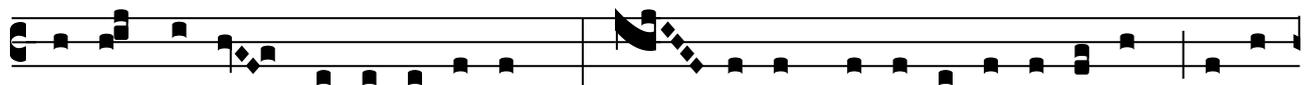
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



였다. <sup>53</sup>그 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, 바위



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.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



적이 없는 무덤이었다. <sup>54</sup>그 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

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. <sup>55</sup>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과  
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  
 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, <sup>56</sup>돌아가 향료와 향  
 유를 준비하였다.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.>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22. 주님의 수난기를 봉독한 다음 경우에 따라 짧은 강론을 한다. 또한 잠깐 침묵할 수 있다.

신경과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친다.